

[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]

**GS건설 인천 계양구 APT 신축 추락 사고 件**

안전기획팀  
'22.10.06. 13: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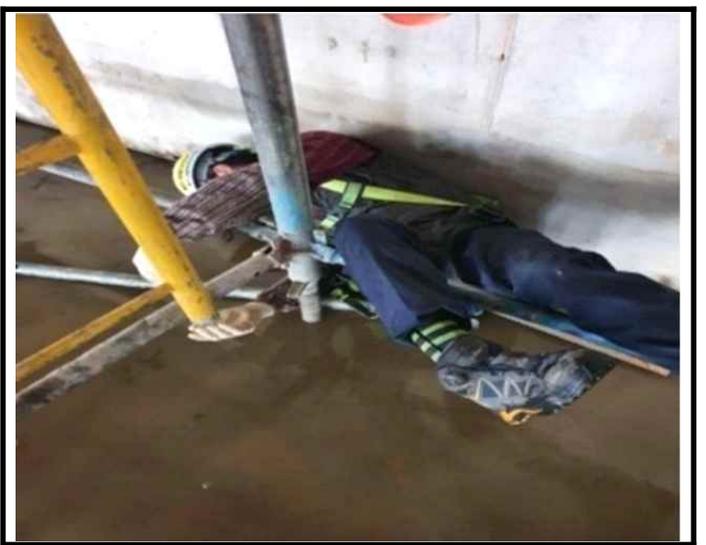
□ **시공사** : 지에스건설(주) (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)

□ **현장개요**

- 현 장 명 :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(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)
- 공사금액 : 2,226억
- 공사규모 : 총 2천371세대 15개동(지하2층 ~ 지상 34층)

□ **재해내용**

'22.10.05(수) 08시30분경 105동 전면 상가 내부 시스템 등바리 보강 작업 중 철선을 가지러 시스템비계 중간발판(2단)에서 해치발판 사다리를 통하여 하부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추락(약 1.8M)



□ **피해상황**

- ▷ 인적피해 : 1명 사망
- ▷ 물적피해 :

□ **사고원인 추정**

- ▷ 수직 사다리 이용중 미끄러짐
- ▷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

□ **당사 현장 조치사항**

- ▷ 재해사례 전파
- ▷ 비계 설치작업시 가설계단을 설치하여 수직 이동하도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치발판과 수직 사다리 설치시에는 답단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사다리 고정철근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
- ▷ 상기 사고 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안전대책 수립 후 이행 실시하고 현장에 설치된 비계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조치 실시

## ■ 언론 보도자료(SBS 외)

###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



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공사용으로 설치된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.

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1.8m 높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

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.

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사고 전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.

사고 당시에는 휴식하던 중 공사용으로 설치해놓은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,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해당 구역의 시공사인 GS건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

경찰 관계자는 "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